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사회주의바다향기 차넘치는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 사업소와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례없는 물고기잡이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사업소와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먼저 우리 나라 수산사업소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건설된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사업소가 현대적으로 건설되었으며 최근 며칠사이에 수천의 도루메기를 잡았다는 보고를 받고 온 나라 인민들에게 회한한 물고기 대풍소식을 한시바빠 전하고싶어 만사를 제쳐놓고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이자 오면서 배전에서 바라보니 수산사업소와 문화주택들이 한쪽의 그림처럼 볼만 하였다고, 동해지구에 황홀경을 이룬 어촌마을이 일떠섰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사업소건설에서 발휘한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부강조국건설력사의 한페이지에 새겨넣고 후대들이 따라배우게 해야 한다는 최상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시면서 그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통합조종실, 랭동가공장, 통졸임가공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고기배에 오르시여 금방 잡아온 물고기를 퍼올리는 모습과 야외하루장에 쏟아지는 물고기폭포, 랭동저장실마다에 금피처럼 그득하니 쌓여있는 물고기더미를 환한 미소속에 보시면서 물고기잡이실태도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군 대안의 수산부문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있다는 보고를 매일 받으면서 너무 기쁘춤이라도 추고싶은 심정이였다고, 열



마전 섬방어대들을 시찰하면서 동해에서 잡은 물고기들이 식탁에 놓여있는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문화회관과 어로공들이 살게 될 다층주택지구도 돌아보시고 군인건설자들이 당의 의도에 맞게 건설을 잘하였다고 높이 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더 많은 물고기잡이성과로 당의 의도를 받들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어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물고기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하루장을 비롯한 수산사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물고기잡이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저장고 바다에 명년도 9월까지 공급할 물고기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는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고 쌓였던 피로가 말끔히 가셔진다고 하시면서 이곳 수산사업소를 조직한 보람이 있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전사들이 원아들과 양로원의 로인들에게 매일 물고기를 떨구지 않고 급식시키려는 자신의 마음에 자기들의 마음도 합쳐 많은 물고기를 잡느라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풍랑사나운 날바다와 싸우면서 올해 물고기잡이계획을 기한전에 넘쳐 수행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는 당에서 제일 중시하는 사업소라고 하시면서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원아들의 친부모, 양로원 로인들의 친자식이 된 심정으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

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보내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사업소와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의 구내에 차넘치는 물고기비린내, 사회주의바다향기를 맡으니 만시름이 풀린다고 하시면서 정말 회한한 풍경, 기막힌 풍경이라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전사들은 기적같은 물고기잡이성과를 통하여 당정책은 곧 과학이고 승리라는것을 확증하고 당의 권위를 옹호하였으며 우리 당에 대한 인민들의 믿음과 신뢰심을 지키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물고기를 잡을수 있도록 과학수산을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문제, 생산과 경영활동의 과학화, 현대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선진적인 어로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항차당, 기망당 어획량을 늘리데 대한 문제,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300일이상의 출어를 보장할데 대한 문제, 초급동 및 랭동시설들을 그쁘히 갖추어놓을데 대한 문제, 어로공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한 문제, 수산사업소별, 배별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등 수산부문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물고기는 가까운바다에서도 잡고 먼바다에서도 잡아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보내주자고 간곡히 호소하시였다.

본사기자





열광적인 환호를 올리는 판문점초병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 85(1996)년 11월



판문점을 시찰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 101(2012)년 3월

우리 민족 누구나가 바라는 소원이 있다. 그것은 조국통일이다.

장장 70년이상 분렬의 비극을 겪고있는 민족의 불행과 아픔을 증경하고있는 판문점은 어제와 오늘도 온 겨레를 통일애로 부르르고있다.

지난 세기 조선전쟁도발자, 패전자인 미국이 우리 인민앞에 무릎꿇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판문점, 지도에서 보면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한 그곳을 겨레의 통일의지가 응축되어있는 통일의 상징으로 만드시려 마음쓰신 절세의 위인이 계셨으니 그이는 바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인 주체 85(1996)년 11월 24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적야의 총부리가 마주하고 항상 침예한 대결기운이 감도는 최전방 판문점을 시찰하시였다.

그때는 민족의 대국상과 련이 자연재해로 공화국이 어려움을 겪고있었다. 이것을 기화로 미국과 남조선의 반통일 세력은 공화국을 어떻게 하나 암살해보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었다. 화약내나는 전쟁연습소동으로 이 땅에 침략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려고 호시탐탐 기회만을 노리였고 《북조선붕괴》는 시간문제라고 하면서 제재와 압살소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었다.

우리 민족이 또다시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판문점을 찾으신것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키고 자주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특기할 사변이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의 친필이 아로 새겨진 비앞에서 오래도록 곁을 옮기지 못하시였다. 수천 수만자의 비문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거룩하고 위대한 뜻을 담고 숭엄히 서있는 친필비를 이윽도록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에 친필로 비준하여주신 역사적문건이 바로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이였다고, 수령님께서 그때에도 밤을 지새우시며 두툼한 문건을 다보시고 활달한 필체로 친히 존함과 함께 《1994. 7. 7.》이라는 날자를 써주시였다고 감회깊이 교시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아버지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전체 조선인민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고 분망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문건에 친필을 남기시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는 수령님의 념원과 의지대로 조국을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의 교시에는 세월이 흐르고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숭고한 통일애국의 뜻과 념원을 기어이 성취하실 굳은 의지가 어려있었다. 당시 남조선언론들은 《우리 민족에게 통일선물을 안겨주시려는 민족적거사》, 《조국통일의 봉화를 지펴올리신 민족의 일대 장거》,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전환시키신 역사적패거》라며 장군님의 판문점시찰을 대서특필했다. 이렇듯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꾸시려는 절세의 위인의 애국애족의 통일 의지가 있어 마침내 일찌기 분렬사에 없었던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고 장엄한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 6.15통일시대가 펼쳐질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나날까지 오로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장군님의

숭고한 영상, 그이께서 통일성업실현을 위한 길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겨레의 마음속에 길이 빛나고있다.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주체 101(2012)년 3월 판문점을 찾으신 원수님께서 숭엄하게 세워져있는 아버지수령님의 친필비를 한글자, 한글자 주의깊게 보시면서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수령님의 영구불멸할 업적을 추억깊이 회고하시였다. 원수님께서 장군님의 로고와 심혈도 더듬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판문점에 무려 4차례나 나오시였다고, 민족분렬의 비극을 가시고 조국통일의 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역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 친필존함을 남기신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 판문점에 친필비를 모시도록 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사람들은 판문점을 찾으신 그이의 모습에서 머지않아 밝아올 통일의 아침을 눈앞에 그

려보았고 절세위인의 애국의 령도따라 조국통일을 이룩하고야말 굳은 결심을 가다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는 조국통일성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과 유훈대로 분렬의 비극을 통일의 환희로 바꾸실 불변의 신념과 의지, 강성변영할 통일 조국의 앞날이 있다.

원수님께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하시였다. 그이의 애국애족의 정치경륜이 집대성되어있는 연철과 담화를 비롯한 로작들에는 조국통일성업을 위한 그이의 결심과 의지와 함께 조국통일위업 실현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 등 원칙적문제들이 자자구구에 뚜렷이 명시되어있다. 공화국이 내놓은 중대제안, 특별서한, 정부성명들에는 북남관계의 오솔길을 대통령로 만들어 민족분렬과 대결의 역사를 끝장내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새 역사를 써나가기 위하여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로고가 그대로 담겨져있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라고 하시면서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투쟁방침으로 천명하시였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들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관철하여 장장 70여년에 걸친 민족분렬사에 종지부를 찍고 통일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통일애국의지가 맥박치고있다.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적대시대결책동에 의해 지금 북남관계가 최악의 위기를 겪고있지만 절세위인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6.15공동선언, 10.4선언이 민족의 통일대강으로 밝은 빛을 뿌리고있어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온 겨레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판문점은 길이 전하리라

선군으로 지켜주시는 평화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선군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의 위력은 비상히 높아지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굳건히 담보되고 있다.

우리 나라가 강하고 인민들이 잘사는것을 가로막아보려는 미제를 비롯한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적대행위는 날로 가중되고있지만 이 땅에서 전쟁의 불꽃이 튀지 않은것은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력이 있기때문이다.

이 무진막강한 군력을 억척같이 다지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헤쳐가신 선군의 길은 그 얼마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헤치신 선군의 길을 이어 오성산과 철령, 까칠봉초소와 판문점을 비롯하여 그이께서 찾으셨으신 인민군부대들과 초소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여 적들이 또다시 이 땅에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항복

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모조리 쓸어버려야 한다고 하시며 군인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무적 필승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신 원수님이다.

그이께서는 최근에만도 조선인민군 부대들과 서부전선에 위치한 마함도방어대, 서남전선수역 최남단에 위치한 갈리도전초기지와 장재도방어대를 시찰하시면서 인민군군인들에게 밀적의 장수함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적들이 등지를 틀고있는 연평도가 손에 잡힐듯이 바라보이는 서남전선수역 최남단에 위치한 갈리도전초기지까지 시찰하시신 그이의 헌신적인 선군장정이 있어 조국방선은 금성철벽인것이다.

그이께서는 지난날 우리 인민이 당한 망국노의 설움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하시려고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방력강화에 큰 힘을 넣어오시였다. 올해에만도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에 이어 신행대구경방

사포시험사격,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켓트발사훈련, 탄도로켓트대기전체돌입환경모의시험 성공, 대출력고체로켓트발동기시험출발 및 계단분리시험, 핵무기병기화사업 등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여주시면서 고도로 정밀화, 지능화된 첨단무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오늘 공화국의 국방력은 그 어디에 있는 적도 단말에 짓부실수 있는 위력한 전략무기들을 완비함으로써 미제가 핵을 저들의 독점물로 여기며 핵을 쥐고 공화국을 위협공갈하던 시대를 영원히 종식시켰다.

나라의 군력을 억척같이 다지시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가시는 절세위인을 모시여 우리 겨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야말것이다.

고영수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드림 없는 의지와 확신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야 하며 조국통일의 주체인 전체 조선민족이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통일 의지이다.

지난 5월 평양에서 있는

네해전 9월이었다. 평양의 세계평화센터에서는 세계평화련합 문선명총재를 추모하는 의식이 있었다. 추모식장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신 화환이 놓여있었다. 문선명총재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평양에서 그를 추모하는 행사를 열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전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조전과 위로의 말씀을 보내주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신 그이께서는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치면 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고 하시면서 조국이 통일되면 우

숭고한 동포애와 고결한 의리

테 이어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도 보내시였다. 그날 만수대의사당에서는 문선명총재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하는 의식도 있었다.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하여 의로운 활동을 한 문선명총재의 애국적소행을 헤아리고계시는 그이께서는 세해 전에는 그의 사망 1년이 되 그것과 관련하여 유가족에게

리 나라는 8천만의 인구와 막강한 국력을 가진 세계적 인 강대국으로, 민족의 강한 정신과 뛰어난 슬기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선진문명국,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정의의 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게 될것이라고 통일 조국의 휘황한 미래를 락관 하시였다.

추모의 말씀을 보내시였다. 그이께서는 추모말씀에서 민족의 화합과 번영, 나라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노력한 문선명선생의 명복을 기원한다고 하시면서 유가족이 선생의 뜻을 이어 나가며 세계평화련합의 모든 일이 잘되기를 바란다고 하시였다. 본사기자

조선지도를 펼치면 서해로 뻗어 나온 철산반도앞에 하나의 점으로 찍혀진 수운도라는 작은 섬이 있다.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솟아있는 섬에는 등대가 있고 그 등대를 지키는 등대원가족들을 비롯하여 얼마 안되는 사람들이 살고있다. 그리고 또 섬에는 불과 몇 안되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신의주교원대학부속 소학교 수운도분교가 자리잡고있다.

지금 이 분교에는 두명의 학생과 두명의 교원이 있다. 결국 한명의 학생을 위해 한명의 교원이 있는것이다. 분교는 때로 단 한명의 학생을 위해 존재한적도 있었다.

얼마전 물에서 멀리 떨어진 수운도를 찾은 우리는 29명의 학생들을 위해 근 40년을 섬에서 보낸 수운도분교의 전해영교원을 만났다. 한 생을 다 바쳐 큰 학교의 한계 학급에 불과한 수십명의 학생을 키운 녀교원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못 잊을 그날은 주제 63 (1974)년 10월 어느날이었다. 한 일군을 통해 등대원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등대원들의 생활을 위한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그속에는 물에 나가 공부하고있는 등대원들의 자식들에게 장학금을 보내줄데 대한 특별조치도 들어있었다. 등대원들은 그 소식에 접하고 목메여 울었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로부터 3년후 나라에서는 물에 나가 공부하는 어린 자식들을 그리워하는 등대원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려 섬에 분교를 세울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었다. 하여 1977년 9월 수운도에 분교가 생겨나게 되었다.

실로 꿈만 같은 일이었다. 등대원가족들은 이 전설같은 이야기가 옛날에는 학교에 학생이 찾아가서 배웠지만 로동당 시대에는 학생수가 많건적건 학생이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서 학교를 세워주고 배워주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학교건설원칙에 따른것이라는것을 꿰어오르는 격정속에 접하게 되었다.

분교도 말그대로 학교이다. 학생이 1명이 있든 몇명이 있든

학생을 찾아가는 학교

그들을 위해 교원이 있어야 하고 교실이 있어야 하며 교구비품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어야 한다. 그런 분교가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가. 동서해의 등대섬들만이 아니라 하늘아래 첫 동네로 불리우는 외진 산골들에도 분교가 있다.

하기에 언제인가 이곳 분교를 돌아본 한 외국인은 한두명의 학생을 위해 학교를 세운 나라는 세상에 오직 조선뿐인것이라고 하면서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다고 한다.

섬분교에 흐르는 전설같은 후대사랑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고있다. 철따라 신선한 과일들을 실은 선박들이 바다길을 달려온다. 새 교복과 학용품들을 안고 중앙과도의 책임일군들이 등대섬을 찾아온다.

그 품속에 무럭무럭 성장한 등대섬분교의 학생들이 지금은 대학교원, 혁신자로 자랑떨치

고있고 어제날 섬분교의 학생이 오늘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섬에서 등대의 기관장으로 근무하고있다.

우리와 동행한 신의주교원대학부속 소학교의 김룡희교장은 학교에는 수운도분교와 함께 또 하나의 분교인 랫도분교가 있다고 하면서 올해 3월까지 랫도에도 1명의 학생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비록 물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학교들이지만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배려는 똑같이 가닿고있다고, 분교야말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진면모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보여줄수 있는 거울과도 같다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어느 나라에나 학교가 있고 학생이 있으며 교원이 있다. 그러나 진정 이 세상 어디에 공화국에서처럼 단 한명의 학생을 위해서도 학교가 있고 교원이 있는 그런 나라가 있는가.

진정 후대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며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이 세상 제일 행복한 조선의 어린이들이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흥분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의 눈에 등대불빛이 비껴왔다. 유난히 반짝이는 등대불빛. 어찌 어둠속에서 배들의 항로를 비쳐주는 불빛이라고만 하랴. 우리에게 는 그것이 가장 밝은 미래는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신 사회주의조선에 있다고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의미깊은 불빛으로 안겨왔다.

본사기자

두 모습에 비낀것애

그날 경찰이 쓰러진 로인

지난해 6월 사업상무로 아메리카에 위치한 어느 한 나라에 갔던 나는 어느날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다리고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하루에 일어나군 하는 총기류사건이 무려 400여건에 달하는 이 나라에서 오늘 또 기폭성을 한것이 아닌가 하는생각으로 그곳으로 달려갔던 나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길가에 쓰러진 한 로인을 병원 데려가겠다고 서로 신경이질을 벌리고있었는데 여러명의 택시 운전수들까지 여기에 합세하는 바람에 싸움은 더욱 격렬해졌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로인,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사람을 위한 다툼이 싸움으로 번져질 정도로 이 나라에 인간에 대한 뜨거운 정이 차고넘치고있단 말인가?...

을 업고 병원에 들어서기가 바쁘게 병원측에서는 《고마운 생명의 은인》에게 막대한 수술비를 요구했다. 그러자 경찰은 자기는 환자를 병원 데리고온 대가로 보상을 받을 권리만 있고 수술비를 지불할 의무는 환자측에 있다고 외면하였다. 하지만 환자는 보상을 들췌치고 한끼분의 식사도 할수 없는 불우한 신세였다.

결국 불쌍한 환자는 약한척 써보지 못한채 운명하고 말았다. 그러나 경찰은 물론 길가에 쓰러진 로인을 먼저 병원 데려가겠다고 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돈 때문에?!...

차마 인간으로서의 상상도 하지 못할 참혹한 현실을 보는 순간 나의 눈앞에는 조국에서 실지로 체험한 하나의 사실이 어제런듯 떠올랐다.

자정이 훨씬 지난 어느해 여름 환자를 업고 비지땀을 흘리며 구급실로 뛰어드는 한 대학생청년이 있었다. 밤늦도록 대학에서 졸업논문준비를 하고 뒤늦게 집으로 향하던 그 청년은 길거리에서 배를 움켜쥐고 쓰러진 한 남자를 발견하였던것이다. 상태를 보아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였다고 하지만 수술회비가 없으니...

나는 급히 의식을 잃은 환자의 품속을 뒤져보았지만 이름과 직장을 확인할만 한 그 어떤것도 발견할수 없었다. 그러자 청년은 자기가 환자의 수술회비를 서겠다고 하면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

의대학 학생임을 증명하는 학생증을 꺼내보였다.

후날 건강을 회복한 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수술회까지 서준 생명의 은인에게 고마움의 인사라도 하려고 대학에 갔지만 그 청년은 국민의 도리를 다했을뿐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소박한 청마저 뿌리쳤다.

너무도 판이한 두 현실을 통해 내가 본것은 지옥과 락원이었다.

하다면 72억의 인구를 헤아리는 이 지구상에 왜 이렇듯 판이한 현실이 존재하고있는가. 그것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에 뿌리를 두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사상이라는 독초가 《만민복지》, 《인간평등》, 《자유》와 《박애》를 떠들며 근로인민대중의 생존을 시시각각으로 위협하고있지만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사상이 공기처럼 흐르는 우리 나라에서는 서로가 친혈육이 되어 피와 살도 나누며 화목하게 살아가고있다.

그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생명이고 삶의 요람이고 미래인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위해,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것이다.

이런 나라, 이런 제도를 감히 누가 허물수 있으며 고마운 이 제도를 지켜 천만이 총독탄이 될 결사의 각오로 만장약된 이런 인민을 과연 그 누가 정복할수 있겠는가.

본건성 부원 최동명

전화위복의 기적이 창조되는 사회주의조선

외 국 의 벗 들 이 강 조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에서 주제조선의 새로운 기적이 창조되고있는 장엄한 현실은 외국의 벗들속에서 끝없는 경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소 책임자 마르틴 뢰체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김정은각하께서는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것을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인민사랑의 력사를 수놓아가고계신다.

그이께서는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를 200일전투의 주라격방향으로 정해주시고 전체 군대와 인민을 불러일으키시였다.

조선로동당과 같이 인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주는것을 근본사명으로 하고있는 당은 이 세상에 없다.

조선로동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조선인민은 북부피해복구전투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하여 세계를 다시한번 놀래울것이다.

민주공교 반둔두종합대학 선

군정치연구소소 위원장 블랑벨레 무켈렝게는 조선을 방문하고 참으로 많은것을 배웠다고 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젊음으로 약동하는 기상으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해나가는 조선인민의 모습을 보고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더욱 놀라운것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조선에서 북부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착시키기 위해 완공을 눈앞에 둔 려명거리건설까지 중시하고 전당, 전군, 전민을 총동원할데 대한 중대조치를 취한 사실이다.

이를 통하여서도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

도이쉴란드반제연단 위원

장 미하엘 코트는 혼연일체의 거대한 위력이 높이 발휘되고있는 사회주의조선의 북부피해복구전투장에서는 전화위복의 기적이 창조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은 200일전투에서 승리자가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도이쉴란드공산당 위원장 토르스텐 쇠비츠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에서는 올해에만도 세인을 놀래우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으로 된다. 조선이 이룩하고있는 성과들

본사기자



온 남녘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을 받는

민심의 바다가 박근혜를 삼켰다

예로부터 백성은 바다와 같아서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한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다.

오늘 남조선의 격노한 민심의 바다가 거대한 격랑을 일으키며 《박근혜》호를 형체도 없이 산산조각내어 뒤집어엎고있다.

지난 12일 남조선전역에서 청와대악녀인 박근혜를 기어이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모이자, 분노하자, 내러오라 박근혜》제3차 범국민투쟁이 대규모적으로 전개되었다.

박근혜의 기만적정책과 범죄적책동에 격노한 민심은 온 남녘땅을 초불바다로 뒤덮고 《박근혜하야》를 웨치며 집권자를 최악의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100만명 이상에 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떨쳐나와 반《정부》투쟁을 벌리려는 남조선정치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거리로 떨쳐나온 사람들은 노동자, 농민, 대학생, 중, 고등학생, 빈민, 학자, 문화예술인, 장애인, 야당의원들을 비롯한 각계층의 사람들이다.

년령도, 성별도, 지식정도도, 성격도 각이한 수많은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박근혜퇴진을 웨치었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실현불가능한 망상이자 대국민사기라고 여겨졌던 박근혜의 국민대통합공약이 정말로 이루어졌다.》며 투쟁대상인 박근혜를 아우조소하였다.

그만큼 박근혜는 너무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씻을수 없는 죄악을 남겼다.

남조선전역을 불태우는 광대한 초불바다는 그야말로 박근혜가 지은 최악의 넓이와 크기를 직관적

으로 보여주는 생동한 화폭이었다.

박근혜를 반대하여 초불을 든 사람들은 어제날에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라는 귀맛좋은 소리에, 그 악녀의 보라빛 《공약》들에 속히고 열리워 지지표를 던졌던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다문 얼마만이라도 믿었던 박근혜가 그들에게 가져다준것이란 행복이 아니라 불행, 삶이 아니라 죽음이었다.

수백명의 어린이들이 차디찬 바다물속에서 죽어갈 때 박근혜는 침대에서 덩굴며 제 불장만을 보았다.

인민들을 개, 돼지로 취급한 박근혜때문에 가슴살관계피해사건, 메르스사태, 각종 사건사고들이 연발하고 남조선은 전기대란, 물가대란 등 각종 대란의 란무장이 되었다.

《일자리창출》이라는 화려한 《공약》은 20대, 30대의 청년들을 세상에 없는 《N포세대》(모든것을 다 포기한 세대)로 만들고 《청년빈곤》, 《청년실신》, 《취업강제》가 유행되는 《개한민국》, 《헬조선》의 참극으로 귀결되었다.

노력해도 노력해도 빛이 보이지 않는 엄혹한 사회현실을 저주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은 송과구의 세 모녀뿐이 아니었다.

꿈과 희망이 넘쳐야 할 청년들과 그리고 로인들도, 지어 세상이 뭔지도 모르는 철부지아이들까지 부모들손에 이끌려 죽음으로 갔다.

그러나 박근혜는 생활개선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최루탄을 퍼부어 란압하고 그로 하여 백남

기농민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동족대결에 미친 극악한 사대매국노인 박근혜는 미상전을 위한 《싸드》를 끌어들이어 조선반도를 전쟁위험에 빠뜨리고 남조선인민들은 어디서 날아올지 모를 미사일의 파격으로 만들었다.

또 민족의 백년속적인 파렴치한 일본과 서슴없이 입을 맞추며 민족의 존엄을 팔아먹기에 여념이 없었다.

박근혜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후 남조선은 파쇼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민생이 죽고, 자유가 죽은 인간생지옥, 평화통일이 질식되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화약창고가 되었다.

사람들은 특대형정치추문사건을 보면서 사회의 이런 비참한 현실이 사람들의 피를 뽑아 제 주머니를 불쿠는 회색의 악녀이며 악한, 살인자인 박근혜의 극악한 반인민적악정이 몰아온 필연적결과임을 뼈저리게 절감했다.

그러니 배신당한 민심의 분노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아무리 때려도 내려가지 않는다면 박근혜지지물은 남조선집권자들중 가장 최악인 5%를 기록했다.

그중 청년들속에서 박근혜지지물은 0%로서 완전한 배척이다.

박근혜는 진보세력들속에서 뿐아니라 제 집안인 보수세력내에서도 버림을 받았다.

《공크리트지지를》이라고 자랑하던 보수의 여성인 경북 대구도 그에게 등을 돌려졌다.

한 대구시민은 《대구

경북은 박정희때부터 아성이었다. 진실을 알고 책임을 묻고싶다. 80%가 9%로 떨어졌다. 대구경북에서 반란의 불꽃을 올릴 것이다.》고 자기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들은 《4년전 투표한 내 손을 짚어버리고 싶은 기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짚어봤는데 이렇게까지 엉망일줄은 몰랐다.》, 《화만 치밀어 오른다.》며 박근혜퇴진운동을 강하게 끌까지 벌릴 자기들의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에게서 희망이 없다는 실망감과 분노는 나 어린 10대의 청소년학생들까지 거리로 떠밀었다.

청소년들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제대로 바꾸는것이 더 중요하다.》, 《박근혜에서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공부를 할수 없다.》, 《박근혜를 우리 손으로 심판하

겠다.》며 박근혜퇴진을 목청껏 웨쳤다.

야당의원들은 《광화문 100만 시민의 념원은 하나, 박근혜의 퇴진입니다.》, 《교복입은 학생들도, 유모차를 끌고나온 부부도,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도, 런던과 함께 온 청년들도 한 목소리로 헌법을 짓밟은 박근혜를 규탄했다.》고 반박근혜운동을 평가하였다.

실지로 집회장에 나타난 단두대는 그대로 박근혜에 대한 민심의 사형선고였으며 상여대렬은 민심을 잃어버림으로서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박근혜의 비참한 죽음을 예고하였다.

박근혜사퇴를 요구하는 투쟁이 남조선뿐아니라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칠란드, 일본 등 10여개의 나라 수십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

실만 보아도 박근혜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얼마나 큰가를 잘 알수 있다.

그들은 그 누구의 부탁이나 강요에 의해 투쟁에 나선것이 아니다.

자기만을 위한 악정으로 재난과 죽음만을 강요한 박근혜에 대한 분노와 환멸이 이들을 불러일으켰다.

쌓이고쌓인 분노는 초불이 되어 민심의 바다를 이루었다.

박근혜가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면 이제는 분노에 찬 민심의 거센 파도가 온갖 최악의 덩어리인 박근혜를 통채로 수장시키고있는것이다.

정치인으로서의 물론이고 인간으로서 완전한 패배를 당했다.

박근혜가 믿을것이란, 의탁할 곳이란 하나도 없다.

지금 박근혜의 최측근들은 모든 죄를 박근혜에게 밀어버리고있으며 집

권여당인 《새누리당》도 《박근혜에 대한 국민적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박근혜에 대한 불만을 내놓고 실토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모든것은 박근혜 자신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이다.

박근혜가 어떻게 하나 민심의 소용돌이속에서 빠져 살아보겠다고 허우적거리고있지만 백약이 무효이다.

이제와서 뒤를 돌아보며 한탄하고 후회해도 산같이 쌓여 민심의 바다를 로써도 씻을수가 없다.

박근혜에게 남은것은 지옥에 가는 길뿐이다.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한생애 인류를 위해 좋은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죽음으로서 좋은 일을 한다.》

집권기간에 사람들에게 재난과 불행만을 가져다 준 박근혜가 좋은 일을 할수 있는 기회란 작가의 말대로 하는것뿐이다.

본사기자 황진옥

나이린 학생들도 거리에 나섰다

그래도 남조선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일말의 꿈이 있었다.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에 입학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꿈이.

하지만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리화녀자대학교 입학과 승마경기대회 우승에 대한 불법 조작은 이들에게서 실오리같은 꿈과 희망마저 앗아갔다.

《돈도 실력, 부모를 원망하라.》는 정유라의 말을 들으며 고등학교 학생들은 청춘의 꿈과 희망을 잃었다고 개탄하고있다. 돈과 권력이 없으면 인생을 《흙수저》인생으로 천대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썩고 병든 남조선사회를 끝없이 저주하고있다.

1년 365일중에 200일 이상을 등교하지 않아도 포로상을 받는 정유라를 보면서, 유명한 기마경수가 길들였다는 최고급품종의 말우에 오른 정유라를 보면서 학생들은 너무도 고달픈 자기들의 처지

를 생각하였다. 자정이 넘어서도 자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실력을 올리고저 피라게 공부하고 부모들을 도와 풍돈을 절약해가는 자기들과는 너무도 관이하게 명품구두가 신장이 모자라게 가득하고 해외에 나가 일류급호텔들만 찾아다닌 정유라이다.

얼마전 남조선의 원광고등학교에 《누나, 리화녀대 합격한거 축하해. 우리도 명문대 들어가고싶는데 우리 능력이 부족하고 부모님이 평범하셔서 비싼말은 못 사주신대. 누난 부자부모님 잘돈 그 능력으로 학교 교칙도 바꾸고 들어간거 대단해.》라고 씩여진 대자보가 나붙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고등학교 학생들만이 아닌 온 남조선인민들이 자기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박근혜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의지로 가슴을 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강류성

권력의 자리에 들어 앉으면 바라는 모든것을 다 해줄듯이 묘사해대던 박근혜가 남조선인민들에게 준것이란 쓰디쓴 불행과 고통, 눈물밖에 없다.

갖은 권모술수로 자기의 더러운 사리사욕을 채우고 인민들을 기만해온 박근혜가 마침내 력사의 심판대우에 올랐다.

《박근혜퇴진!》을 웨치며 남조선각지에서 세차게 타오른 거대한 초불의 대하가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에게 절망을 가져다주고 청춘의 꿈과 희망을 앗아간 박근혜 《정권》을 반대하여 고등학교 학생들도 투쟁의 초불을 높이 추켜들었다. 《내 적은 힘이 나마 보래고싶다.》며 너도나도 거리로 떨쳐나섰다.

미래의 주인공들이 청년학생들에게서조차 버림을 받은 박근혜에게는 앞날이 없다.



박근혜역적패당은 비참한 파멸을 면할수 없다

최순실의 권력투쟁이 박근혜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14일 남조선 통일부장관 홍용표가 《국회》에서 발언하면서 일개 민간인에 불과한 최순실이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제가 아는 한 어떤 개인이나 밖에서의 조종에 차지우지된 것이 아니다.》느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했다.

최순실이 박근혜의 뒤에 숨어서 《정부》가 벌려놓은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개입해왔다는 것이 이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뻔한 사실인데도 그것을 어떻게 하나 부정해 보려는 홍용표의 추태에 다소

《드레즈덴선언》이니 하는 것들이 다 최순실이고 안해낸 것이며 북남관계를 극단으로 몰아간 《대북 심리전방송》 재개와 개성공업지구 전면 중단, 《싸드》 배치도 최순실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최순실의 꼭두각시, 허수아비에 불과한 박근혜가 명색뿐인 《대통령》 자리에 올라앉아 이처럼 북남 관계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범죄를 연이어 저질러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기업가들과 근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남조선인민들에게 해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 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홍용표와 같이 박근혜에게 《충실》한 권력의 끄나풀들이 저들의 죄행을 감싸보려고 온갖 꾀변을 다 늘어놓는 것은 《박근혜퇴진》을 요구하여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인민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참을수 없는 우롱이 아닐수 없다.

지금 홍용표를 위시한 통일부패거리들은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으로 《국정》이 마비상태에 빠지고 최악의 궁지에 몰린 저들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2016한반도 국제포럼》이라는 것을 벌려놓고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도록 해야 한다.》는 나발

을 또다시 불어대고 있다.

이는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으로 저들에게 쏠린 민심의 규탄과 분노를 탄대로 돌리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간 저들의 범죄를 합리화해보려는 어리석은 추태에 불과하다.

이미 공개된 자료이지만 제 머리가 없는 박근혜는 최순실이 쫓겨 《2년내에 북이 붕괴하고 통일이 된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북남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는데 기승을 부리었다고 한다. 하지만 최순실의 말과는 정반대로 오늘날 최악의 붕괴위기에 직면한 것은 다름아닌 박근혜 《정부》이다. 최순실과 같은 무당의 말을 믿고 실친 박근혜나 그 지지자들 《충실》히 집행한 홍용표나 어느 한군데도 짝 지지 않는 인간추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남조선민심의 일치한 평가이다.

아직도 박근혜에게 기대를 걸고 북남관계 파국 책동에 계속 매달리는 홍용표에게 며칠전 선임자였던 류길재가 한 탄식을 똑바로 새기기를 충고한다. 《저와 같이 불행한 국무위원이 다시는 이 땅에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류길재의 이 말은 민심의 사형선고를 이미 받은 박근혜와 함께 《순장》될 홍용표의 가련한 운명에 대한 예고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력사상 가장 비참한 《대통령》

지금 남조선에서는 누구나 다 박근혜를 반대하고 있다.

지금 전세계가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을 특종보도감으로 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박근혜가 명색만 《대통령》이었다고 조롱하며 대서특필하고 있는 형편이다.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가.

에로부터 제 대접은 제가 받는다고 했다.

최순실의 꼭두각시인 박근혜는 《대통령》 자리에 앉기바쁘게 친미사대와 동족대결만을 일삼았다. 결과 6.15의 옥동자로 불리우던 개성공업지구마저 폐쇄되는 등 북남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처하였다.

남조선의 형편은 또 어떤가.

파쇼독재강화와 1%특권 계층만을 위한 악정으로 민주주의는 여지없이 말살당하고 대다수 근로대중은 도란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정치는 실종되고

사이비종교인이었고 그의 딸 최순실이었던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과 관련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남조선의 권력대 《대통령》 들중 현직 《대통령》으로서 검찰에 불려가 취조당하게 되는 것은 박근혜가 처음이라고 한다.

지금 전세계가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을 특종보도감으로 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박근혜가 명색만 《대통령》이었다고 조롱하며 대서특필하고 있는 형편이다.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가.

에로부터 제 대접은 제가 받는다고 했다.

최순실의 꼭두각시인 박근혜는 《대통령》 자리에 앉기바쁘게 친미사대와 동족대결만을 일삼았다. 결과 6.15의 옥동자로 불리우던 개성공업지구마저 폐쇄되는 등 북남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처하였다.

남조선의 형편은 또 어떤가.

파쇼독재강화와 1%특권 계층만을 위한 악정으로 민주주의는 여지없이 말살당하고 대다수 근로대중은 도란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정치는 실종되고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위기에 민생은 파탄나 어디 서나 아우성소리, 못살겠다는 소리뿐이다.

이렇게 박근혜의 집권 4년이 흘렀다.

돌이켜보면 남조선에 《정권》이 생겨난 이래 적지 않은 《대통령》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았다. 그들 가운데는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밀려 타향으로 쫓겨가 비참한 운명을 고한 자도 있고 심복의 총에 맞아 비명횡사한 자도 있다.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쁘게 감옥행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자들도 있다.

민심을 등진 자들의 말로는 언제나 이처럼 비참한 법이다.

박근혜의 운명은 력대 독재자들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운명이다. 집권 5년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쫓겨갈 운명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남조선 전지역에서 벌어진 대규모의 제3차 범국민투쟁은 박근혜를 기어 이 력사의 심판대우에 세우려는 각계층중의 의지가 최절정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서울에서는 노동자, 농민,

대학생, 중, 고등학생, 빈민, 학자, 문화예술인, 장애자, 야당의원들을 비롯한 무려 100만여명이 청와대를 에워싸고 박근혜의 퇴진을 완강하게 요구해나섰다. 청와대를 향한 수많은 촛불이 밤을 밝혔다. 아마 박근혜도 청와대의 어느 안방에서 밤새껏 타오른 그날의 촛불을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퇴진!》을 웨치는 분노의 함성소리에 잠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남조선사람들도 말했듯이 박근혜가 유일하게 지킨 《공약》 이라면 이처럼 그 자신을 반대하는 《95%의 국민통합을 이룩해낸 것》 뿐이다.

민심은 이미 박근혜를 버렸다. 몸은 비록 살아 물과 공기를 마시고 하루 세끼 먹이를 먹고 잠을 잔다고 해도 그는 이미 죽은 몸이나 같다.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대통령》. 그가 바로 박근혜이다.

이제 《력사에 최악의 《대통령》》, 《가장 비참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은 두고두고 박근혜의 꼬리에 붙어다니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구속하라!!》.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100만 촛불시위가 벌어진 서울 광화문광장에 세워졌던 그림 판이다. 경찰이 박근혜의 량 팔을 비틀어잡고 끌고가고 있다. 살기등등하고 세상을 눈 아래로 보던 그 오만 권력자가 고 최순실 가고 끌려가는 박근혜의 얼굴에는 공포와 죽음의 빛이 력력하다.

지금 민심의 비발치는 탄핵 요구에 얻어맞아 《식물대통령》이 되고 더는 헤어날수 없는 파멸의 수렁창에 빠진 박근혜의 비참한 처지를 풍자적으로 조소하는 그림이다.

4년전 비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나누어썰 때 박근혜가

들의 자기 처지를 상상이나 했으랴. 《우주의 기운》으로 얻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무한정 누리려는 부른 회망만이 검은 배속에 가득찼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민심이 진정한 권력이고 힘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래서 민심을 짓밟고 최순실을 섬기며 저만을 위한 정치 아닌 정치를 해왔다. 그 결과가 남조선의 비참한 《국정》 붕괴, 권력마비상태였다. 그 대가로 박근혜는 이제 력사상 가장 불행한 《대통령》, 천하의 바보라는 《명예》를 얻고 손에 수갑을 차야 할 신세가 되었다. 남이 아니라 제 스스로 초래한 비극적운명이다.

본사기자



인권폐허의 실체는 가리울수 없다

사상 류례없는 특대형추문사건으로 운명이 경각에 달한 박근혜 《정권》이 출로를 동족대결에서 찾고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에 더욱더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지난 9일 남조선당국은 그 무슨 《북인권정책협의회》라는것을 벌려놓고 《북인권법》시행이후 《북인권증진정책》의 추진방향을 협의하였으며 14일에는 미 국무부 《북인권》특사 로버트 킹을 서울에 끌어들이 남조선미국 《북인권협의체》 회의라는것을 열고 《북인권문제》 여론화, 《북인권책임규명》강화, 《북인권개선》등을 논의하였다.
그런가하면 15일에는 서울주재 여러 나라 대사들과 《북인권간담회》라는 모의판을 벌려놓았으며 오는 25일까지는 서울에 신입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을 끌어들이 《탈북자증언》수집, 《북인권기록센터》방문, 기자회견 등 《인권》모략판대국을 펼쳐놓으려고 하고있다.
한편 국제무대에서는 16일에 진행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의 《북인권결의안》표결에 《지지, 찬성》한데 이어 12월경에 예상되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인권결의안》표결에 《찬성》하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북인권문제》를 상정시키겠다고 떠들어대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이 오래전부터 터무니없는 《북인권》소동에 매여달리면서 존엄높은 공화국의 영상을 흐려놓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해왔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극도의 통치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공화국에 대한 정치군사적도발과 함께 그 무슨 《인권》을 떠들며 여론의 시선을 판데로 돌려 위기에서 벗어나보려 하는것이 바로 동족대결을 생존방식으로 삼는 남조선보수당국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폭로된바와 같이 박근혜는 특대형정치추문사건과 부정부패행위, 파썸폭압정치로 하여 헤어나올수 없는 정치위기에 직면하였으며 이제 남은것은 이미 정해진 파멸의 운명을 그대로 감수하는것뿐이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운명의 막바지에 이른 박근혜가 극도의 통치위기에 처하여 벗어나기 위해 케묵은 반공화국 《인권》소동계를 벌려놓으려는 민심의 분노를 다룬데로 돌려보겠다고 어리석게 떠들어대고있는것이다.
원래 박근혜는 그 누구의 《인권문제》에 대해 논할 자격도, 권리도 없는 반인권, 반인륜범죄의 주범이며 원흉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련일 거세차게 일어나고있는 박근혜퇴진투쟁은 온 남조선땅을 인권불모지, 인권의 암흑천지로 만들어버린 박근혜악녀에 대한 울분과 분노의 폭발이며 지난 12일 청와대를 포위했던 100만의 초불도 박근혜

살인 《정권》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인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다.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 《이게 나라냐》는 울분이 터져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으면 안되는 세계 최악의 인권폐허시대, 인권말살시대가 다름아닌 남조선땅이다. 인민들을 《개, 돼지》로 여기면서 그들의 피땀을 빨아 풍청거리는 흡혈귀들이 감히 존엄높은 공화국에 대한 《인권문제》를 운운하는것자체가 언어도단이며 철면피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공화국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해빛아래 인민의 모든 꿈과 이상이 활짝 꽃피어나는 인간사랑의 대화원이다. 전대미문의 대재난이 휩쓸었던 북변방에서 창조된 전화위부의 기적은 진정한 인권의 리상향이 어디인가를 똑똑히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이다. 미래에 대한 신심과 희망에 넘쳐 악동하는 공화국을 보면서 온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는 때에 한갓 궤변인 《북인권》타령따위로 민심의 시선을 돌려놓고 준엄한 심판을 모면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력사의 오물통에 처박힐 제 운명의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지하고 우매한 닭대가리의 오산이다.
개는 짓어도 행렬은 가기 마련이다.
박근혜가 아무리 《북인권》나발을 불어대도 공화국의 위용과 지위는 더욱 공고해질것이며 특대형인권범죄자들인 박근혜역적무리들은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씩은 《정경유착》의 산물

남조선에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에는 뿌리깊은 《정경유착》도 깔려있다.
폭로된바와 같이 박근혜는 수하종개들을 내세워 재벌에게서 막대한 자금을 건어들여 미르, K스포츠재단이라는것을 비법적으로 만들어냈다.
문제는 여기에 깊숙이 관여해온 대기업들이 저들의 추악한 《정경유착》행위를 가리우고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활하게 놀아내고있는것이다.
지금 대기업들은 자기들은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밀고있다.
얼마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청와대가 재단모금을 지시하였으며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중범이 100여차례나 전화로 《누가 물어보면 기업들의 자발적모금이라고 말하라.》고 강박한 사실까지 털어놓으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에 덩달아 삼성, 롯데, SK를 비롯한 대기업들도 검찰조사에서 박근혜가 《대국민사과》 때 기업들이 《선의의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청와대가 강요하였다.》, 《최순실에게 사실상 협박이나 갈취를 당했다.》고 우는 소리를 하는가 하면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느니, 《울며 겨사먹기로 돈을 썼다.》느니 튀니 하며 《대기업은 피해자일뿐》이라고 우는 소리를 하였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이러한 행

위는 저들의 범죄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기만적인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피해자라고 보기에선 지금까지의 대기업들의 태도가 너무도 표리부동하기때문이다.
피해자라면 마땅히 범죄자들을 징벌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것이다.
하다면 대기업들의 태도는 어떠하였는가.
사건초시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와 언론에 나서서 재단모금은 철저히 자발적으로 낸것이며 청와대가 지시하지 않았으며 박근혜를 적극 비호주둔하였다.
그러다가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민심의 눈초리가 날카로워지자 이를 부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증거를 없애버리는데 급급하고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예상하고 담당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바꿨다.》며 《씨버도 일부 교체했다.》고 증언하였다.
뿐만아니라 미르, K스포츠재단설립에 제일 많은 자금을 냈고 최순실일가족속들에게 체계적으로 공물을 섬겨바친 삼성그룹은 내부문서들을 소각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황급히 해외에 내보내여 검찰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준비까지 갖추었다고 한다.
증거를 없애려는 재벌들의 초조한 행동은 이들이 결코 《최순실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사건을 적극 조장시키고 옹호해온 공범자들이라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대기업들이 권력의 강압에 굴복했다기보다 각종 특혜의 유지와 확대, 저들의 요구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했을것이라는것이 남조선 각계의 일치한 평이다.
야당들과 남조선언론들은 《재벌은 (대통령)의 직무행위를 퇴물로 산 공범》, 《삼성이 (정권)실세인 최순실을 통해 최고권력을 관리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퇴물을 제공한것》, 《퇴물을 통한 정경유착이 박근혜, 최순실게이트를 리해하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자 궁극적인 종착역》이라며 대기업들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비난하였다.
남조선 시민사회단체들도 《박근혜뒤에 눈감고 옹호하는 재벌》이라며 대기업들을 포함한 《박근혜게이트》에 련루된자들을 모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은 온갖 사기협잡과 부정부패가 판치는 거대한 오물더미인 남조선사회의 필연적산물로서 사실 이번엔 드러난 《정경유착》의 실상은 빙산의 일각일 따름이다.
대기업들은 근로대중의 고향을 짜내어 통치배들에게 섬겨바치고 그 대가로 1%의 기생충들이 번성하는 불의의 악순환이 계속되는것이 바로 인간생지옥인 남조선이다.
남조선에서 수십년간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제2의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이 또 터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
최진욱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돕는다.》
남조선집권자 박근혜의 그 《꿈》이 현실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던 《우주》가 《도우려》 내려왔으니까요.
11월 12일 서울의 저녁, 불천지였습니다.
아니 별천지였습니다.
청와대를 향하여 도도히 물결쳐가는 초불의 흐름은 마치 저 하늘의 은하수가 고스란히 내려앉은듯싶었습니다.
서울만이 아니라 광주, 대전, 울산 등 남조선전역에 초불은하수가 흘렀습니다.
그 속에는 새날을 부르는 청춘의 새별도 있고 견우, 직녀성인듯 가정의 행복을 가꾸는 아빠, 엄마별도 있고 참신한 아기별도 있었습니다.
남녘의 어둠을 밝힌 초불은하수, 거기서 울려나온 목소리는 허수아비너왕의 《업적》에 대한 《칭송》이었습니다.
《하늘엔 반신반인 떠있고 강물엔 큰비 이끼 떠있고

《선거》 때 람밭하던 《공약》이 언제나 폐기되는 곳 든든한 비서실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드는 최순실, 그네의 마음속엔 언제나 최태민 생각나는 곳 눈밖에 나면 언제든지 찍어내리고 대드는 놈은 물대포로 쏘아버리고 이렇게 우린 허수아비너왕을 위해 이렇게 우린 (유신) 부활 노 래부르자
아하 우리 독재자 딸 아하 귀래너왕 아하 영원토록 닻***야
왜 그렇게 《칭송》이 자

늦게나마 지켰거든요.
그것도 제 한몸을 던져서, 인민들이 아니라 최순실을 믿은, 제 머리가 아니라 선무당의 주술에 의거한 박근혜의 정치추문사건이 없었다면 리념, 지역, 계층, 세대의 갈등을 넘어 저렇게 거대한 초불은하수가 생겨나지 않았을것입니다.
그래서 남조선인민들도 박근혜의 《업적은 95%의 대동단결을 이룩한것》이라고 하는것입니다.
또 하나의 《업적》은 남조선을 《무당공화국》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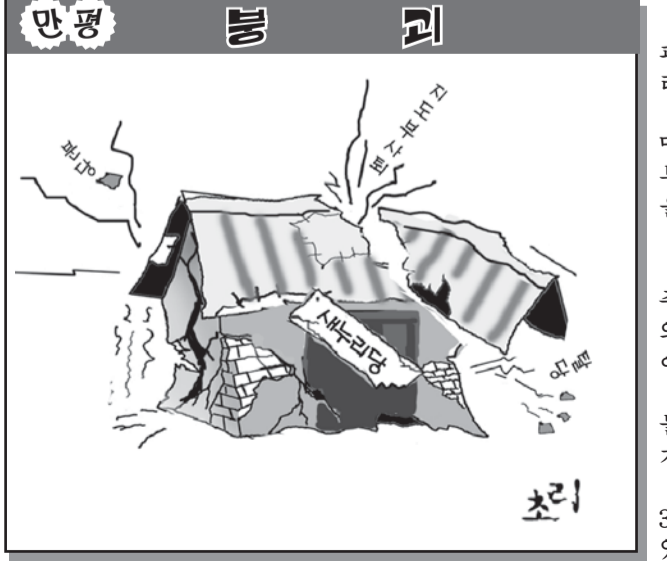
에 펼쳐보인 3 500만원짜리 《하품제조》, 박근혜, 최순실을 풍자한 대형홍상에 못못아넣기, 《닭모가지 비틀기》, 박근혜의 미신행위를 폭로한 오방색풍선, 무지를 표현한 닭모형, 최순실의 끈에 매달려있는 꼭두각시박근혜, 상복을 펼쳐입은 농민들이 박근혜를 형상한 상어를 멘 장례식행렬, 각계의 열망을 담은 대형단두대모형, 《박근혜 그만두유》라는 상표가 달린 우유 무료배달...

순실은 구속되었지, 팔다리 노릇하던 심부들은 떨어져 나가 배신을 하지, 그러니 닭머리로 새로운 《업적》을 쌓을수 없고, 그래 잠이나 자면서 새로운 《꿈》을 꾸는 모양입니다.
아무리 그렇다쳐도 민심의 《칭송》에 《잠이 보약》이라고 대답한것은 참너무도 《정의》없는 태도입니다.
그때도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를 도우려 합니다.
선무당인 최순실은 허황한 미신으로 《준비된 너성대통령》을 조작해냈지만 남조선민심은 초불의 힘으로 《하야된 너성대통령》을 만들어주려는것입니다.
백성이 하늘이고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도 있듯이 남조선에서 꺼지지 않는 초불은하수는 그대로 박근혜가 말하던 《우주의 기운》이 아닐가요.

《미친놈의 지랄보다 병신년의 남은 세월 네가 더 무섭다. 귀막은채 폭주하는 네가 더 무섭다.》, 《싸우는우리가 이긴다.》, 《박근혜 퇴진, 예비결의로 쉼근혜》
미신의 힘으로 추악한 《업적》만을 덧쌓아온 악녀, 등신녀, 이제 그에게 《하야업적》을 하나 더 주어 그렇게도 잊지 못하는 비명횡사한 《유신》독재자의 결의로 보내주자는것이 남조선민심입니다.
언제인가 박근혜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세상마치는 날이 고민이 끝나는 날》이라고.
박근혜가 간절히 바라는것을 남조선인민들이 풀어주자는겁니다.
박근혜의 말을 빌어 말한다면 《간절히 원하면 백성이 돕는다.》 일것입니다.
본사기자 김 현



만필 《간절히 원하면...》



만방에 떨친것입니다.
문명의 21세기에 사이버종교인 무당의 혼이 배회하는 땅, 무당의 주문이 정치의 기초로 된 사회, 무당의 딸과 손녀가 모든것을 좌지우지 한 남조선, 그 우에 꼭두각시, 허수아비로 《거연히》 서있는 박근혜.
《무당통치국》인 남조선과 함께 박근혜의 이름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애비는 《유신》으로 악명떨쳤고 그 딸은 《유신》부활과 함께 미신으로 오명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남조선에 풍자문화의 《변영기》를 열고 일약 그 주인공으로 된것도 박근혜의 대단한 《업적》으로 봐야 할것입니다.
11월 12일에 남조선인민들이 보여준 풍자문화를 몇가지 보기로 합시다.
박근혜의 심복 차은택이 3억 5 000만원을 들여 만들었다는 《늘품제조》대신

네 부모를 탓해!》, 《바페리(추전지)도 5%면 바꾼다.》 등의 야유조소가 넘치는 손패말은 셀수 없을 정도였고 《하야해라 박근혜》, 《우리가 누구게? 개, 돼지》, 《하야송》 등의 풍자노래도 그칠새 없었습니다.
박근혜가 《창조문화》니, 《문화통성》이니를 떠들었더니 인민들은 풍자문화를 활짝 꽃피웠습니다.
그 외에 《선거쿠테타》와 《력사쿠테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싸드》배치 등 《유신》독재를 부활시키고 매국배족을 한것도 박근혜의 《업적》으로 볼수 있겠지요.
이렇게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를 위해 초불을 켜놓고 《칭송》으로 밤을 새우는데 정작 주인공은 잠만 잡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해온 최

